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
		배포일자	2022년 5월 10일(화) 총 2매	 환경특별시 인천
담당 부서	수산과	담 당 자	· 수산정책팀장 송병훈 ☎ 440-4851 · 담당자 배주승, 양현규 ☎ 440-4852,5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일 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어촌뉴딜사업 전문가 현장자문 추진

- '22년 대상지 3개소에 대한 지역 맞춤형 자문 실시 -
- 10일 외포항 · 13일 덕교항 · 16일 두무진항 순차적 진행 -

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2월 신규 선정된 '22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3개소에 대하여 전문가 현장자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인천시가 약 389억을 투자해 실시하는 어촌뉴딜사업지에 전문가를 투입해 대상지의 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지속가능한 어촌재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한다는 계획이다.

현장 자문은 10일 인천 강화군 외포항을 시작으로 13일 중구 덕교항, 16일 옹진군 두무진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추진되며 해양수산부 자문위원(7명), 시, 해당 군·구 및 수탁사(어촌어항공단, 농어촌공사), 지역협의체, 주민 등이 참여한다.

인천시는 이번 자문 대상지에 ▲중구 덕교항 130억 원(부잔교, 선착장 보수, 갯벌체험 특화공간 조성 등), ▲강화군 외포항 116억 원(선착장 보수, 젓갈 수산시장 경관정비 등), ▲옹진군 두무진항 143억 원(물양장 신설, 특판

물 판매소 운영 등)등 총 389억 원을 에 투입해 낙후된 어촌·어항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항·포구를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해 사회·문화·경제·환경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.

중구·강화군·옹진군은 올해 7~8월에 또 한 번의 현장자문을 실시한 후, 시 협의를 거쳐 9월 기본계획 수립과 해양수산부 최종 승인을 받아 ‘23년 상반기 인·허가 협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같은 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게 되며, ‘24년 12월까지 사업완료 할 계획이다.

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“ ‘19년 대상지(5개소)의 어촌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‘22년 사업을 내실 있게 잘 추진하여 코로나 19로 침체된 어촌의 경제발전과 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” 고 말했다.

<첨부> 예비종합계획도 3부.

붙임

예비종합계획도(중구 덕교항)





붙임

예비종합계획도(웅진군 두무진항)

